

한국의 기록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Overview and Future Direction -

한 상완(Sang-Wan Han)**

김 성수(Sung-Soo Kim)***

◁ 목 차 ▷

1 서 론	3.1 <한국기록관리협회>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2 정부기관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3.2 <한국기록관리학회>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2.1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3.3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한국기록학회>의 기록보존관리연구
2.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3.4 기업(企業)의 기록보존 · 관리
3 민간차원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4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副) 이상(以 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대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치(措置)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 문제, 3)기록물 관리·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관

* 이 연구는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2002.7.3. - 7.5,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개최, 대회의 주제: 기록매체의 보존관리)>에서 '기조연설'로 발표된 "한국의 기록보존 현황과 발전방향"을 그 제목과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논문체제로 변경한 것임.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한국기록관리협회> 회장. 문학박사. (swan@yonsei.ac.kr)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 <한국기록관리협회> 사무국장. 문학박사. (muyo@chongju.ac.kr / muyokss@hanmail.net)

리의 전문인력 교육·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중·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와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델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히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特記)할만한 사항으로는 ①'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 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強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②'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 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quo of Korean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from the Governmental as well as professional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in relation to the new legislation on records management. Among many concerns, this study primarily explores the following four perspectives: 1)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s; 2) the Korean Association of Archives; 3)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ne of the primary tasks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s(GARS; 韓國政府記錄保存所)> is to build the special depository within which the Presidential Library should be located. As a result, the position of the GARS can be elevated and directed by an official at the level of vice-minister right under a president as a governmental representative of managing the public records. In this manner, GARS can sustain its independency and take custody of public records across government agenc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Archives Management(韓國記錄管理協會)> made efforts in regard to the preservation of paper records, the preservation of digital resources in new media formats, facilities and equipments, education of archivists and continuing training of practitioners, and policy-making of records preserv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academia and corporate should cooperate continuously to face with the current problems.

<The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韓國記錄管理學會)> has held three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date. The topics of conferences include respectively: 1)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al education of Korea, Japan, and China; 2) knowledge management and metadata for the

fulfillment of archives and information science; and 3)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preservation with the understanding of ongoing archival research in the States, Europe, and Asia. The Society continues to play a leading role in both of theory and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archival science in Korea. It should also suggest an educational model of archival curricula that fits into the Korean context.

The Journals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have been published on the six major topics to date. Findings suggest that "Special Archives" on regional or topical collections are desirable because it can house subject holdings on specialty or particular figures in that region. In addition, archival education at the undergraduate level is more desirable for Korean situations where practitioners are strongly needed and professionals with master degrees go to manager positions.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universities, therefore, are needed to open archival science major or track at the undergraduate level in order to meet current market demands. The qualification of professional archivists should be moderate as well.

1 서론

한국은 일찍부터 [삼국유사(三國遺事)]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역대의 국가적인 역사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기록보존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근래에 이르러서는 조선시대의 국가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MOW)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록에 관한 유구(悠久)한 역사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일제침략시기와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록보존 활동은 피해를 대로 피해하여졌다. 즉, 일제침략시기의 기록물은 현재 친일적인 기록물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독립운동(獨立運動) 및 한민족(韓民族)의 자주(自主)적인 활동에 관한 기록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日帝)의 체포 등 만약을 대비하여 우리 스스로에 의하여 고의적(故意的)으로 파기(破棄)하거나 소멸(燒滅)시킨 결과, 광복 후에도 이들 기록에 대한 복원은 현재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1948)된 이후 50년이 경과한 20세기말까지도

1) 그나마 일본 정부(후생성)가 1993년까지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인계하여 현재 정부기록보존소가 정리·보존하고 있는 이른바 "일제하(下) 강제연행자 명부(46만 여명(복사본 544권, M/F 26쪽))" 속에서, 일제하 강제연행된 200만명(추정) 중 그 일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6.25동란(1950-1953)과 4.19혁명 그리고 5.16군사쿠데타와 광주민주항쟁(1980) 등 격변하는 현대사를 거쳐 오면서 국가의 중대한 기록과 대통령의 통치사료마저 왜곡되거나 임의로 파괴(破棄)되는 현상이 속출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0세기말인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공무원과 일반국민들은 기록보존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여, 각급기관에서는 책임이 따르는 문서일수록 그 보존연한(保存年限)을 짧게 하여 고의적으로 폐기(廢棄)하거나, 중요한 회의일수록 그 회의록을 일부러 작성하지 않는 기이(奇異)한 현상을 보였다. 또한 국가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 및 예산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²⁾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전산화(디지털화) 등 21세기 정보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전산관리체계가 20세기말까지 확립되고 있지 못하였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5709호; 이하 '기록물관리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고, 2000년 초에는 그 시행령이 반포되었다.

위와 같은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반포는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을 비롯한 제반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즉, 국가기록물의 대표적인 관리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의 업무와 활동이 보다 가시적으로 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종래 종이매체 기록물을 주로 관장하던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법령과 관련하여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2010년까지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³⁾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기록관리·보존 활동의 개략(概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에 창립되어 한국의 기록보존 실무업무를 추진해 오던 <한국기록보존협회>는 1999년에 그 명칭을 <한국기록관리협회>로 변경하여 그 활동을 확대전개하고, 그 회원(관련 기관 및 기업체, 개인회원 등)들이 관련 업무를 확장하거나 새로 개척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때를 같이 하여, 한국기록관리학의 학문적 영역의 개척과 이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각 대학교의 대학원 및 학부에 기록관리학 전공

2) 1997년 <정부기록보존소>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행정부소속 각급 기관이 생산하는 영구문서의량은 연간 18만권에 이르지만, 정부기록보존소의 인력은 131명뿐이어서 연간 처리능력은 5만권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3) 한상완·김성수·서혜란·윤대현, 2001.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 <한국기록관리협회>의 지원에 힘입어 2000년 7월에 <한국기록관리학회(韓國記錄管理學會)>가 창립되었다. 이어서 2001년에는 <한국기록학회>가 <국가기록연구원>을 모태로 하여 창립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기록관리학의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전문가 그룹들이 형성되고, 이들 그룹들이 각각 중심축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학의 실무와 이론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제 위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보존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1) 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 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정부기관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국가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활동에 관하여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정부기록보존소>와 <국립중앙도서관>을 들 수 있다. 이제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정부기록보존소>는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및 그 시행령 등의 반포에 주력하였다.⁴⁾ 이 보존소에서는 1)국가기록물보존업무, 2)기록물관리전산화, 3)보존기술연구개발, 4)전문교육과정운영, 5)교류협력, 6)국가기록물의 전시, 7)국가기록물의 열람 등의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기록관리에 관한 전국적인 정보교류의 차원에서 기관지 기록보존소식을 2000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였다.⁵⁾ 특히 <정부기록보존소>는 정

4) 기록물관리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등에서의 세부준비를 위하여 시행령 중의 일부사안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시기부터 기록물관리법이 본격적인 시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2000. 10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이 기관지는 변화하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반 소식을 서로 교류

부의 [전자정부법]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정부기록물 디지털서비스체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무의 추진 현황에서는 IMF.관리체제 이후 몇 년 동안 300여명에 이르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국가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국가기록물의 디지털화는 국민들이 국가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정보와 자원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기록보존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완수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2.1.1 <정부기록보존소>의 특기(特記) 사업

위와 같은 정부기록보존소의 고유업무 이외에, 현재 이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록보존을 위한 활동 중에서 특기(特記)할만한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정부기록보존소는 최근(2002.5.31)까지 일본 정부(후생성)가 우리나라 외교부로 인계(1991-1993)하여준 이른바 “일제하 강제연행자명부”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이 기록물로 인하여,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등으로 연행된 200만명(추정) 중에서 약 48만명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안건대, 여기에 힘입어, 이제 <정부기록보존소>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마련하여서라도 일제침략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草芥)같이 던졌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완전한 기록파일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완성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기록보존소>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록물관리법에 대비하여, 현재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마련하고 있다. 전국 51,800개 정부기관에서 분류·처리하여야 할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시안 및 단위업무 표준화와 확정 작업’은 차후 방대한 행정부의 기록물들을 효과적으로 분류·처리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 표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작업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향후의 제반 국가 및 지방 기록물 등의 기록물관리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각급 정부기관의 해당 처리과에서 생산하는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용 기록관리시스템 및 중앙·지방기록보존소용 기록관리시스템과

하는 종합소식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의 연관관계에서, “자료관 및 지방기록보존소용 S/W 표준기능규격”을 마련함으로써 완벽하게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전력(全力)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기록물에 대한 보존관리의 정상화와 효과적인 기록정보의 대국민봉사 및 서고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신축계획중인 “보존전문서고의 신축기본계획”에 서는, 국가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大統領記錄館)>이 입주되어야 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국가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여러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목(H)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 발전방향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2.1.2 <정부기록보존소>의 과제

위와 같은 <정부기록보존소>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기록보존소>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國家中央記錄物管理機關)’⁶⁾으로서 그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位相)이 반드시 제고(提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리법」 제5조 2항에 제시된 8개 사항의 업무 및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국가기록물 및 군(軍)·국정원·검찰·경찰 등의 특수기관의 기록물들 등 모든 국가기록물을 총괄(總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기록물들을 조정(調整)·관리(管理)하고, 또 새롭게 신설(新設)될 <대통령기록관>의 기능까지 포괄(包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은 반드시 격상(格上; 昇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서 수많은 부서 중 ‘2급의 국장급’이 그 기관장을 수입하고 있는 하나의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행정체계적으로 보아도 위의 법령에서 제시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⁷⁾

6) 현행 「기록물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서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라는 조문에 입각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현재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 중의 하나인 행정자치부 내에서 <정부기록보존소>를 보는 관점은 행자부 내 수많은 부서 중 ‘2급 국장’이 관장하는 ‘정부문서에 관한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일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의 조직체계 내에서는, 해당부서의 최고책임자가 어떤 직급인가에 따라서 그 업무의 중요성도 판가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 및 이 기관의 소속부처를 조사하여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선진국 기록관리기관의 위상은 우리의 현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 기관장의 위상은 장관급이며, NARA 또한 독립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어떤 부서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최상위급(장관)의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의 기관장이 독립적으로 명령체계를 수행될 수 있는 확고한 법적(法的)인 기반 위에서 국가기록물을 수집·관장하고 있는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기록물을 관장하는 최고 수뇌(首腦)는 차관급이며, 이 기관(Public Record Office)은 대법원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서 대법원의 권위와 역사에 의거하여 국가기록물을 수집·관장한다는 상징의 표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 국가별 국가기록관리기관의 기관명 및 기관장의 위상, 소속부처

국가명	기관명	기관장 위상	기관소속
미 국	NARA	장관급	독립기관
영 국	Public Record Office	차관급	대법원
프랑스	Archives Nationales	국장급	문화부
중 국	國家檔案局	차관급	국무원
일 본	國立公文書館	국장급	총리부
한 국	정부기록보존소	국장급	행정자치부

중국의 경우, 국가기록물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장의 위상이 비록 차관급에 지나지 않으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어서 최고권력자인 당(黨) 서기(書記)가 모든 국가당안(國家檔案; 국가기록물 즉 예컨대 인사당안 등)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의 비중이 정치권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기록청(Archives Nationales)이 문화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음을 주목(注目)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모든 국가중요문화재 및 국가기록물 등을 문화부⁸⁾에서 일괄적으

8) 그 기관장이 비록 국장급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로 총괄함으로써 국가기록물 또한 매우 중요한 문화사업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과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⁹⁾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은, 미국·영국·중국의 사례와 같이, 예컨대 가칭(假稱)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과 같은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으로 반드시 승격(昇格)·제고(提高)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기관장은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칭 <국가기록관리청> 등의 명칭으로 승격된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및 각급 국가기관의 기록물들을 총괄(總括)할 수 있는 위치에 존속되어야 비로소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의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총괄·조정·관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격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독립기관 즉 예컨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보장될 것이다.

셋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함께 들어설 때, 역대 대통령기록물들은 집중적인 수집·관리·보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중심제를 거의 일관적으로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대통령기록물은 역사(현대사)의 올바른 기록과 해석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공적(公的) 재산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重要)한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이라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수집조차 되고 있지 못하는 작금(昨今)의 상황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신축 때에는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부기록보존소가 2001-2002년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신규 기록물보존서고 확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정부기록보존소 1999), 신축 서고의 설립 때에는 필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건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 당위성이 마땅하다. <대통령기록관>은 현행 기록물관리법 제8조와 13조에 입각해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이 문화부에 소속된다면, 국가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시각은 현재 행자부의 서무업무 수준으로 취급되는 것 보다는 격상(格上)되어, 국가기록물을 문화적 기록정보로 활용할 소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보존·정보제공·연구·박물관·교육·관광 등의 기능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김성수·서혜란 2002, 51-55 참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의 통치기간 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그 시기에 발생한 국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기록물도 함께 수집되어, 이들 기록물들이 전시관(展示館)이라는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展示)된다면, 그 <대통령기록관>은 아주 훌륭한 대국민 교육·문화·홍보의 장(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의 설립(設立)은 대단히 시급(時急)하고도 긴급(緊要)한 과제(課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할 때에는, 위와 같은 관점을 중시(重視)하여,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전시관(展示館)과 보존서고(保存書庫)를 반드시 병존(並存)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김성수·서혜란 2002, 62). 다행스럽게도 선진제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부가 현재 보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수량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보존서고(保存書庫)를 건축하여 보존함과 동시에 전시관도 또한 마련하여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물관리법'에 의하여, 현재의 대통령부터는 임기 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이 대량으로 수집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및 전시관의 규모를 장기적 안목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미리 그 공간을 확장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¹⁰⁾

다섯째, 신축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입지조건 및 환경·주변조건 그리고 입지의 선정에 관한 문제는, 필자 중의 한 사람이 이미 상세하게 논술한 바 있다(김성수·서혜란 2002, 58-61 참조 요). 요컨대, 신축 보존서고는 수도 서울 시내에 웅장한 독립건축물로 신축(新築)·조성되어야 할 것이다.¹¹⁾ 또한 그 입지의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각 부서 또는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총동원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축되는 국가기록물 전문서고의 기본계획(안)에서 마지막으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향후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統-)후의 제반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 후의 문제 및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고려해 보

10) 여기서 반드시 하나 유념하여야 할 것은, 현재 서울 상암동에 건축 중인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등 역대 대통령기념관과 <대통령기록관>을 혼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미국에서도 역대 대통령기념관은 대통령기념도서관의 개념이 강하고 그 실제 또한 그러하다.

11)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국·영국·프랑스·중국·캐나다·이탈리아·일본·스페인 등 모든 선진국의 국가기록관들은 해당 국가의 수도(首都) 시내(市內)에 웅장한 독립건축물로 조성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김성수·서혜란 2002, 59의 <표 2> 참조 요).

면, 이 격변하는 시기의 대통령기록물은 그 총량(總量)이 현재의 대통령기록물 보다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신축되는 대통령기록관의 시설과 면적의 문제는, 통일을 전후하는 시기의 대통령기록물의 총량을 고려하여, 현재 예측되는 공간 면적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함과 아울러 앞으로 적어도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국가기록물관리 장기발전계획과 연관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기록물 전문서고가 단계적으로 확장·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그 신축준비에 사력(死力)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중·장기 발전계획(방향)에서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조만간에 예컨대 <국가기록관리청> 등의 명칭으로 승격되면서 장관급이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독립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¹²⁾ 그래야만 비로소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행정부·사법부·입법부 및 헌법기관 등의 각종 기록물관리기관들을 범(凡)국가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국가기록물의 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가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¹³⁾

2.2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가문헌(國家文獻)을 수집·보존하고 이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하여, 국가문헌 및 관련 기록물을 보다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자료보존관>을 별도로 준공(2000.8.30.)함으로써 국가기록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12)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든지, 프랑스의 경우처럼 문화부로 이관하든지 간에, 소속 부서에 상관없이 최소한 차관급 이상이 관장(管掌) 청(廳)단위 이상의 국가기록물관리기관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13) 그밖에 청 단위 이상으로 승격된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은, 나아가 전국적으로 민간에서 보존하고 있는 고(古)기록인 고서·고문서·고서화(古書畵) 등의 보존·복원 및 관리의 문제와 그 위탁보존 등의 업무들을 기획·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기록물의 관리·보존 등 민간기록물의 관리에도 지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위의 <자료보존관>의 준공 이후, 그 후속조치로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이미 완료(2001.12.22)함으로써, 자료보존 환경의 이상적인 모델은 물론 재난대비책까지 구축하고 있는 현황에 도달해 있다.¹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의 남은 과제는, 이미 제3단계로 수립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 중·장기 발전계획(2002-2010)’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01, 128-130). 즉,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보존 전담부서(예컨대, 자료보존부(Preservation Directorate))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4개 이상의 독립된 자료보존 관련 ‘과(division)’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즉, ①자료보존연구과(또는 팀; 이하 동(同)), ②보존처리과, ③복원처리과, ④대체매체보존·처리과 등을 설치한 후 각 과(또는 팀)에 부여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다.¹⁵⁾ 그리하여, ㉠기존의 대체인 종이자료의 열화·훼손에 관한 복원의 문제, ㉡산화된 보존자료의 탈산처리 문제, ㉢보존환경의 완비 문제 등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⁶⁾ 물론,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물 관리·보존을 위한 각 세부분야 전문가의 영입 및 양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국립중앙도서관 2001, 126).

그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명심하고, 전국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각종 도서관들의 자료보존업무를 지속적으로 지도·관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민간차원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에서 민간차원의 기록관리에 관한 현황은, 1)기록보존의 실무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는 <한국기록관리협회>를 들 수 있고, 2)그 이론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한국기록관리학회>·<한국기록학회>·<국가기록연구원> 등을 들 수 있으며, 3)기업(企業)

14) 국립중앙도서관, 2001,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참조.

15) 이하 상세한 사항은 상계 주(註)의 제125쪽 <그림 5-1>의 내용 참조 요.

16) 이하 상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2001, 115-139) 참조 요.

의 기록보존·관리의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¹⁷⁾ 이제 이러한 구분 아래에서 그 각각을 논술하면 아래 각 절의 내용과 같다.

3.1 <한국기록관리협회>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기록관리협회>¹⁸⁾는 1995년에 <한국기록보존협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였다. 즉, <한국기록보존협회>는 1995년 10월 6일에 가칭(假稱) <사단법인 한국기록보존협회>의 발기대회(發起人會)를 거쳐, 1995년 11월 24일에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기록보존협회(KRCA)> 창립총회를 성사(成事)시킴으로써 탄생되었다. 50여개의 개인·단체·유지(有志)회원으로 출범한 이 협회는 1996년 4월 2일에 설립등기(設立登記; 서울地法 상업등기소(110121-0028392))를 필함으로써 정식으로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보존협회>는 1996년에 <정부기록보존소>가 발주(發走)한 “문서·도서류의 물성(物性)조사 및 화학처리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 협회는, 1996년 중국 북경(北京)에서 개최된 제13차 ICA(세계기록보존총회)가 개최한 “전자(電子)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이라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개시하였고, ICA동아시아지역분과회(EASTICA)의 회원으로 정식 가입하였다. 그 밖에 본 협회는 중국 당안국(檔案局)과 교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기록보존협회>는 그 이듬해인 1996년에 ‘기록물의 물성(物性)조사 및 화학처리체계’ 등 기록물보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기록보존과 관리(The Journal of Records Conservation and Management)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우리나라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및 실무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1996년과 1997년 2년 동안 이 협회의 주요 관심사는 ①재난과 관련한 기록물의 보호, ②기록물의 가치와 평가 및 감정(勘定), ③종이의 보존과 증성지, ④광화일시스템, ⑤마이크로필름에 의한 기록물의 보존 등의 실

17) 그밖에 최근 들어 대학(교)기록보존소가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고기록(古記錄)과 관련하여, 세계최초(世界最初)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直指心體要節; 직지(直指))을 중심으로 고(古)인쇄술과 종이 및 관련기술 등에 집중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18) 본 협회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본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명칭을 <한국기록관리협회>라고 변경하고, 이를 1999년부터 명명하기 시작하였다.

무(實務)와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⁹⁾

1999년 7월에 <한국기록보존협회>라는 명칭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본 협회는 하계(夏季)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즉 1999년 7월 9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 서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①한국기록보존협회의 기능과 발전방안(한국기록보존협회 한상완 회장), ②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와 전망(정부기록보존소 김선영 소장), ③기록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태수 교수), ④자료보존의 현황과 동향 및 대책(한국정보기술개발원 송연섭 원장) 등의 4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1999년 하반기에 <정부기록보존소>가 주도하여 ‘기록물관리법’이 연말 안에 제정되리라는 사실을 접수한 <한국기록보존협회>는, 본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협회의 명칭을 <한국기록관리협회>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변경된 협회의 명칭으로 1999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제1회 기록관리·보존 워크숍’을 개최하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한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²⁰⁾ 전국의 기록관리 실무자들이 집결하기 쉬운 중부지역인 대전(유성)에서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는 “종이 및 뉴미디어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기록물관리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전망’을 비롯하여 ‘디지털 통합기록물관리 시스템’ 등 9개의 세부주제²¹⁾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 워크숍의 특징은 본 협회의 개인회원 및 기업체회원 등이 각급 기관 등의 기록관리담당실무자들을 초청하여,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다양한 전문기술과 지식의 실재를 소개함으로써, 각급 기관의 기록보존담당 실무자 등이 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인식을 제고(提高)시키고, 기록관리 실무의 수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公有)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그 이듬해인 2000년에 개최된 ‘제2회 기록물 관리·보존 워크숍’에서는, “전자정부 및 자료관의 기록물 보존·관리업무”라는 대주제의 제목으로, ‘1)전자정부 및 지방기록보존소(자료관)의 설치,²²⁾ 2)종이기록물의 보존,²³⁾ 3)기록매체²⁴⁾’라는 세 가지 세션으로 크게 분

19) 한국기록보존협회, [기록보존과 관리] 통권 1호(1996) 및 2호(1997), 참조.

20) [한국기록관리협회 제1회 워크숍(’99.10.28.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개최)] (서울: 사단법인 한국기록관리협회, 1999) 프로시딩, 참조.

21) 그 세부주제는 ①기록물관리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전망, ②고문서의 복원기술 및 고문서의 자료관리, ③산성지의 대량탈산처리 기술, ④자료의 생물학적 열화 대책, ⑤디지털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⑥비정형 정보관리 및 유통솔루션, ⑦EDMS와 기록물처리 장비연동 필요성에 대한 고찰, ⑧하이브리드 이미징 시스템, ⑨컴퓨터자료의 출력관리를 위한 COM시스템 등임.

22) 제1세션에서는 ①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장비 및 전산화, ②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치를 위한

류하고, 그 세부 문제들을 논의하였다.²⁵⁾ 이 워크숍의 내용을 전년도 제1회 워크숍과 대비하면, '그 교육의 주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세분하고, 각각의 세션에서 논의되는 세부문제들이 더욱 명확하면서도 실제적인 당면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는 정평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시행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현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지방기록보존소의 설치 문제 등에서 보다 실현가능한 사항들과 아울러 기록보존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금번 <한국기록관리협회>는 <한국기록관리학회>와 공동주최하고, <정부기록보존소>의 후원을 얻어, 200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는 "제3회 기록물관리·보존 워크숍"을 대전 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기획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과 매체관리"라는 대주제 하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확정한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관리의 표준화'에 따른 문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 '기록물의 디지털화(스캐닝) 방향'을 논의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록전문가의 양성 문제와 관련하여 '기록관리사의 양성에 관련된 문제'의 제기를 시도한다. 그밖에 '기록물의 증거능력과 체크포인트' 등 기록관리·보존과 관련한 현안 제반 문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996년부터 발행하던 기관지 기록보존과 관리(*The Journal of Records Conservation and Management*)의 명칭을 기록관리보존(영문명은 동일)으로 변경하고, 이 명칭의 기관지를 2000년 12월부터 연간(年刊)으로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는 본 협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과 그 궤(軌)를 같이 하는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 및 기업체회원 등이 우리나라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실무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차후 구축될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그

제도, ③현재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최적보존방향, ④기록보존 관련 수장고의 기능과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23) 제2세션에서는 ①종이기록물의 보존과 관리, ②인체에 무해한 문서소독시스템의 개발 및 사례, ③탈산처리장비의 완성 및 향후의 기대 등이 논의 되었다.

24) 제3세션에서는 ①전자파일의 영구기록화 처리 및 동향, ②디지털환경에서의 마이크로필름의 활용 등이 논의되었다.

25) ①한국기록관리협회·한국기록관리학회 공동주최, 제2회 기록물관리·보존 워크숍. 2000. 전자정부 및 자료관의 기록물 보존·관리업무. (2000.10.), 26-28.

②한국기록관리협회, 2000, 記録管理保存 제5호 (서울: 한국기록관리협회). 참조.

리고 대학기록보존소 등의 설치와 그 기록물 관리·보존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그 활동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3.2 <한국기록관리학회>의 기록관리 활동현황 및 발전방향

3.2.1 <한국기록관리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의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의 발전을 위하여 발족된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한국기록관리협회>의 헌신적인 지원(支援)에 힘입어 2000년 7월 4일에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창립되었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智識基盤社會에서의 記錄管理學 發展方案과 未來”라는 제목으로, 한·중·일 동양삼국 기록관리학의 발전현황과 미래의 전망을 한 자리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었던 매우 요긴(要緊)한 학술대회였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한상완(韓相完) 한국기록관리협회장이 “한국기록관리학의 현황과 미래”라는 기조강연(基調講演)에서, 1)한국기록관리의 과거와 현재, 2)한국기록관리 분야의 현황, 3)한국기록관리학회의 위상 등을 논급하며,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의 원칙 등을 천명(闡明)하였다. 그리고 주제발표로서는, 첫 번째로 남효채(南孝彩) 정부기록보존소장이 “한국정부의 기록행정 변천과 전망”을 발표를 하였고, 두 번째로 중국 인민대학 당안(檔案)학원 펑후이린(馮惠畊) 원장이 “중국 당안학의 발전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세 번째로 <일본기록관리학회>를 대표하여 다카야마 마사야(高山正也) 고문(前 會長)이 “일본 기록관리학의 발전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함으로써, 한·중·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학 발전현황 및 동향과 그 전망을 단 하루 동안에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던 의미심장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었다. 그리고 일본 스루가다이(駿河台)대학 지식정부학부 김용원(金容媛) 교수가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라는 논제로,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사항들을 발표함으로써, ‘한국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이 차후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의 방향과 그 방법론을 제시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위와 같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학’이라는 학문의 창립 및 그 출발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던 것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2000.7.4) 개최에 연이어, <한국정보관리학회>와 공동주최하고 <한국기록관리협회>와 미국 <OCLC INSTITUTE>가 공동주관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 제2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세미나는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적극적인 공동행보와 <OCLC INSTITUTE>의 전문가인 Erik Jul (Executive Director)과 Hwa-wai Lee(OCLC Visiting Distinguished Scholar & Dean Emeritus, Ohio Univ. Libraries)의 파견에 힘입어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의 활용”이라는 대제목으로 양일간(2001.6.22. - 6.23)에 걸쳐 연세대학교 위당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행사였다. 특히 이 국제세미나는, 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의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기능과 소임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학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OCLC 연구소에서 파견한 국제적인 전문가와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최된 매우 시사성이 강하고 중요한 국제대회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국제대회에서 발표된 세부 주제는 아래와 같다.²⁶⁾

- ① Erik Jul, "Introduction to Knowledge Management(지식경영의 개요)", 1-8.
- ② Erik Jul, "Knowledge Management Applications(지식경영의 응용사례)", 9-14.
(①, ②의 번역 : 문성빈 박사(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③ Hwa-wai Lee, "The Role of Libraries in Knowledge Management(지식경영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 15-32. (번역 : 서은경 박사(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④ 심경, "과학기술 종합경영시스템 구축", 33-59.
- ⑤-⑥ Erik Jul, "Introduction to Metadata(메타데이터 개괄)", 61-72.
- ⑦ Erik Jul, "OCLC CORC(Cooperative Online Resource Catalog) 서비스 소개", 73-74.
- ⑧ 김성희,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75-82.
- ⑨ 최희윤, "프로세스 기반 지식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현과 활용", 83-142.

2002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기록관리학회>는 하절기에 개최될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본 학회의 창립 때부터 차후 3차에 걸친 일련(一連)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기록관리학이라는 학문의 개척과 그 확실한 정착을 꾀하기 위한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할 것을 다짐하였던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었

26) 이하의 세부주제는, (한국정보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1.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의 활용. (서울: 한국정보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에 수록된 발표자 성명, 주제명, 해당 쪽수를 기입한 것임.

으며,²⁷⁾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의 보존관리에 관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금번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델란드 등 유럽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서구(西歐)의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동양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해 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동기와 기획에 입각하여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의 대체목(Title)을 “기록매체의 보존관리(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ervation and Digital Preservation of Archives and Records)”라고 명명하며 개최하면서, 미국의 기록관리학 전문가 2인과 독일 네델란드 등에서 전문가 각 1인씩 그리고 중국의 전문가 2인과 <일본기록관리학회> 회장을 초빙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더불어 국내의 전문가 7인을 초청하여 그 발표에 임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록관리학계의 연계 및 결속을 위하여 본 학회를 비롯하여 <한국기록관리협회>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 전공)의 3개 단체·대학교가 공동주최로 개최하게 되었던 것이다.

2002년 7월 3일(水)부터 7월 5일(金)까지 2박 3일에 걸쳐 총 13개의 소주제를 발표한 ‘제3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소주제명은 아래와 같다.²⁸⁾

- ①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 Sang-Wan Han, Sung-Soo Kim, 11-14.
한국어 : 한국의 기록보존 현황과 발전방향 / 한상완·김성수, 167-176.
- ② The Research about Future Chinese Archives Management / Liu Wei, 15-18.
중국어 : 未來中國檔案管理研究 / 劉 衛, 19-22. 한국어 : 미래의 중국당안 관리 연구 / 유위, 177-180.
- ③ Transfer of Wisdom and Experience within an Organization / Tsubosaka Tatsuya, 23-32.
일본어 : 組織体における知恵と経験の伝承 / 壺阪 龍哉, 33-42.
한국어 : 조직의 지식과 경험의 전승 / 호판 용재, 181-192.
- ④ Shifting from Paper to Digital Records / Michele V. Cloonan, 43-46.
한국어 :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전환 / 미셸 쿨난, 193-198.
- ⑤ Preservation management of new media for archives / Dae-Hyun Yoon, 47-58.

27) 그리하여 본 학회는 창립 당시 ‘제1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중·일 동양삼국 기록관리학의 발전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리고 ‘제2회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기록정보의 핵심 요체가 되는 메타데이터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던 것이다.

28) 이하 본문의 서지기입은, ‘세부 소주제명 / 발표자명, 프로시딩의 해당 쪽수’의 순으로 기입하였음.

- 한국어 : 새로운 기록매체로서 뉴미디어의 보존관리 / 윤대현, 199-212.
- ⑥ A global issue: preservation of digital objects / Hans Hofman, 59-76
한국어 : 세계적으로 부상한 연구과제: 전자자료의 보존 / 한스 호프만, 213-226.
- ⑦ Design and practice of records conservation library / Cheul-Seung Kang, 77-84.
한국어 : 자료보존 수장고 설계와 실제 / 강철승, 227-232.
- ⑧ Development of an Advanced Device for Preservation the Record Medium and Disinfection using Natural Aroma / Kee-Hyun Kim, 85-98.
한국어 : 기록매체의 보존을 위한 신장비 개발과 천연향 소독 / 김기현, 233-248.
- ⑨ The J. Lloyd Eaton Collection of Science Fiction and Fantasy in the Digital Age / Sidney E. Berger, 99-106.
한국어 : 전자시대의 특수자료 보존관리 / 시드니 버거, 249-256.
- ⑩ RESTORING AND FIXING DETERIORATED WRITING IN ARCHIVES / Li Yu Hu, 107-112.
중국어 : 褪變檔案字跡的恢復與保護 / 李玉虎, 113-118.
한국어 : 퇴변한 당안필적의 회복과 보호 / 이옥호, 257-262.
- ⑪ Conservation & Restoration of Paper Records / Ji-Sun Park, 119-128.
한국어 : 종이 기록물의 보존과 복원 / 박지선, 263-272.
- ⑫ Importance of preserving paper materials in the age of digitalized preservation / Isamu Sakamoto, 129-136.
일본어 : デジタルブリザーベーション時代の紙資料保存の重要性 / Isamu Sakamoto, 135-138.
- ⑬ The Papersave Process / Joachim Liers, 139-146.
독일어 : Der Papersave Prozeß / Joachim Liers, 147-154.

한상완 한국기록관리학회장의 개최사에 이어, 정창영 연세대학교 부총장 및 이재충 정부 기록보존소장 그리고 이용남 한국도서관협회부회장의 축사가 진행된 다음 14인의 기록관리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을 각각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⁹⁾

1) 한상완(한국기록관리학회장)과 김성수(한국기록관리학과 총무이사)는 공동으로 “한국의 기록보존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한국의 기록보존에 대해, ①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에 관한 문제, ②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대한 기록물의 보존 문제, ③기록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④기록보존·관리의 전문인력 교육·양성 문제, ⑤기록보존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보존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을 이끌어나가

29) 독일의 기록물보존전문가인 Joachim Liers씨는, 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에 독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프로서딩에 수록된 원고의 내용으로 그 발표를 대신하였다.

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서고 신축 때에 '대통령기록관'의 입주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들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상호 협력하여, 한국의 국가기록문헌들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보존하고, 기록자료보존체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록문헌 보존·복원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2) Liu Wei(중국 섬서성 당안국 부국장)는 "미래의 중국당안 관리 연구-디지털당안관 건설의 초보적인 탐색-"에 대해 발표하였다. 디지털당안관을 건설하는 주요한 목표는 디지털당안 관리, 디지털당안관의 조작 및 전통당안의 디지털화에 대해 완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선진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관한 업무 규칙과 기준을 건립하며, 각 유형의 디지털 자료창고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것의 최종목적은 당안관 관장의 정보에 디지털식 관리를 실현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특징은 정보관리의 디지털화, 자동화, 서비스의 네트워크화와 다양화, 정보내용의 광범성인데, 예를 들어 각 종의 매체 정보, 정보의 저장과 사용자 방문이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자원의 집산처로서 당안관이 네트워크 운영을 실시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당안관은 새로운 운영 모델을 찾아 네트워크사회에서의 경쟁능력을 높여 사회대중을 위해 서비스하고 이로써 미래 사회의 공중 정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3) 壺阪龍哉(일본 기록관리학회장)은 "조직의 지식과 경험의 전송 -디지털 시대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보기술혁명에 의해 대량의 정보와 지식이 다양한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조하고, 인류 기억의 보고의 풍부한 전송을 피하여, 이것에 의해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디지털 시대에 기록관리의 역할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다면적으로 검토,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종이·필름·전자매체에 관계없이,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에 걸쳐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이나 각 관청에서 일시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나, 대부분 일시적으로 활용하였을 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온 기관이 적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유지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한국·중국 등 극동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기록관리학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록관리의 보급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4) Michele V. Cloonan(미국 UCLA 부교수)은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전환 -그렇다면 보존은?”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전자문서의 보존은 보존관리인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가져다주었고 정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파악하기 힘든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서가 일단 매체에 전환되면 수백년 혹은 수천년까지 영속할 수 있었으나, 전자문서는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매체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는데, 기술력이 시대에 뒤떨어져 쓰이지 않는다는데, 표준이나 안내지침이 부족하거나, 보존관리인들의 전자문서관리와 보존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등이라고 하였다. 종이자료와 달리, 전자매체는 물리적인 객체로 보존될 수 없고, 전자문서는 단지 문서를 재생할 능력을 보존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자문서의 적절한 관리가 문서보존에 더할 수 없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전자정보관리의 초창기인 지금 우리가 최신의 문화유산물이 지닌 잠재력과 함정을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완전한 보존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5) 윤대현(정보기록보존소 보존과장)은 “새로운 기록매체로서 뉴미디어의 보존 처리”에 대해 발표하였다. 숫자 및 문자정보·음성·동영상 그리고 정지영상을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한 자기매체나 더 많은 대용량을 수록할 수 있는 광매체들은 이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매체들은 기존의 기록저장 매체보다는 다양하고 대규모의 내용이나 사건들을 수록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매체들의 장기적 저장 필요성은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6) Hans Hofman(네덜란드 국립기록청)은 “세계적으로 부상한 연구과제: 전자자료의 보존”에 대해 발표하였다. 전자보존이라는 것은 한 기관이나 한 분야,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루어야 할 세계적인 규모의 쟁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불후의 해결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존을 위한 필요조건은 전자정보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기본

으로 하고, 문서에서 장기보존에 관련된 기준은 문서생산기관에서 문서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져야 한다면서 문서가 어디서 관리되어지느냐에 따라 문서시스템이나 업무시스템에 통합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자문서보존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려면 전자정부와 전자서비스전달과 관련된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완전히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강철승((주)시공테크 상무이사)은 “자료보존 수장고 설계와 실제”에 관해 발표하였다. 박물관의 유물과 보존서고의 기록물은 과거의 산물을 보존하는 성격이나 의미가 비슷하다고 보았다. 다만 박물관의 경우는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형태 및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반면, 기록물은 유물과는 달리 그 시대가 비슷하며 유사한 물질과 형태로 이루어져 좀 더 특화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존서고는 차단성·조습성·단열성·내화성·환경성·수납성·방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록물 보존에 대한 의식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비해 보존시설에 대한 의식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보존시설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전문적인 보존시설이 아직까지 몇 군데 밖에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나, 보존서고와 유사한 수장고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8) 김기현(BIOMIST 연구소 소장)은 “기록매체의 보존을 위한 신장비 개발과 천연향 소독”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요 원본기록물의 미생물 피해 예방 대책이 시급하고, 기록물 취급자에 대한 인체 안정성 및 오염예방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소독 및 장비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동소독시스템을 적용하면, 근본적인 기록물의 훼손 예방 및 보존수명 연장, 천연소독처리를 통한 인체유독성 및 자연환경 오염 예방, 기록물 소독장비의 100% 국내 개발로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서고 내 기록물의 최적 보존환경 유지, 서고 및 기록물 관리자의 인체 안정성 확보, 지속적인 서고소독 및 효율성 확보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 Sidney Berger(미국 UCLA, California Center for the Book 소장)는 “전자시대의 특수자료 보존관리”에 대해 발표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리버사이드의 특수자료실의 실례를 설명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리버사이드는 1969년 내과 의사 J. Lloyd Eaton으로부터

7500점에 달하는 공상·과학·공포·유토피아소설류를 구입하고, 이 자료들을 Eaton collection 이라 불렀다. 이 자료들은 아주 독특하고 핵심적인 자료들이어서 다른 도서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그 대학에서는 장차 연구 가능한 분야로 인식하고 순수연구 자료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Eaton collection은 2002년에는 이 종류로는 세계최고의 규모로써 8만 단행본과 6만 5천권의 팬진(공상과학소설 팬클럽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약 2만 5천권에 달하는 대중잡지, 5만권 이상의 공상만화, 유명한 작가들의 수서본 및 기타 자료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자료의 범위가 방대한 Eaton collection의 보존 전략은 복잡했다. 이러한 Eaton collection의 주된 문제점은 소장자료가 너무 다양해 한 가지 방법으로는 보존·처리할 수 없으며, 많은 양의 자료를 보존할 때 그 비용은 아주 크므로 최선책은 아마도 2-3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이다. 즉, 페이지를 이미지로(글이나 삽화포함) 전자형태로 스캔이나 다른 방법으로 먼저 입력하여 어떤 처리라도 그 본문을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존법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통합전략은 보존·보관·처리·마이크로 필름화 및 원본이나 마이크로 필름에서 선별된 텍스트를 전산화, 그리고 전자형태자료를 새 매체로 선별적 이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0) Li Yu hu(중국 섬서성 당안보호과학연구소 소장)는 “퇴변한 당안 필적의 회복과 보호”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퇴변한 필적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에 관계되는 여러 학과를 섭렵하여, 각고의 연구 끝에 이 영역에서 일련의 중대한 돌파를 얻었다고 하였다. 볼펜·복사지·푸른색 먹(靛)·연필·청사진 등의 필적 재료의 퇴색·확산·회복·고정기제 및 종이 노화와 보호기제 등 복잡한 요소를 연구 분석하여 일련의 퇴변한 당안 필적회복과 보호제를 연구 제작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 일련의 성과가 세상에 나온 이래 중국 30개성 자치구에서 정부기관·경찰·법원·도시규획과 건설·지질·수도·전기·철로·석유·조사·설계·군사 등의 일부분 당안에서 응용되었고, 심각하게 퇴변한 대량의 진귀한 문헌 문물로 하여금 원래 모습을 회복시켰으며,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건을 내구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 동시에 국제 당안계 및 지질문물 수장, 연구 부분에서 강렬한 영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하였다.

11) 박지선(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은 “종이문화재의 복원”에 대해 발표하였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많은 양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작고 편리하게 담고자 치중하고 있는 지금, 그 주체가 되는 기록물, 즉 종이에 적혀있는 과거의 역사는 조금씩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기록물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다른 매체로 전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실제로 보존 대상인 이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삼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기록물의 보존은 과거에도 중요하게 여겨졌고,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기록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해 받아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에 불과하므로 이 메신저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가 전해 받은 과거의 유물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원형을 잘 보존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기록물의 소실은 그 기록물에 적혀 있는 과거 역사의 소실을 뜻한다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존과학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탐험을 뒷받침할 많은 정보들을 제시하여 줄 것이며 이러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될 때 한국 종이 기록물의 보존·복원이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2) Isamu Sakamoto(일본 吉備國際大學 교수)는 “디지털프리저베이션 시대에 있어서 종이 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현재 일본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기록물(자료) 보존의 현황을 다양한 슬라이드 화면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디지털보존 시대에서도 종이기록물의 보존은 여전히 그 중요성이 막중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계의 기록유산: Memory of the World; MOW’의 지정은 세계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인류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발표자는,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기록물에 대한 수복(修復)보존 활동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록물의 보존측면과 활용측면이 수레(車輪)의 두 바퀴처럼 그 필요성을 각각 인식하고, 종이기록물에 대한 보존활동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당부하였다.

3.2.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출범 후 그 이듬해인 2001년 3월부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라는 명칭의 학회지를 년2회(매 3월 및 9월)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2회(춘계, 추계)에 걸쳐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논문집(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발행을 통하여 한국기록관리

학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의 결실(結實)에 매진하고 있다.

위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창간호부터 제2권 제1호(2002.3)까지 발표·수록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여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부류(部類)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1) 기록관리(학)의 현황(조사) 및 분석
- 2) 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
- 3) 기록관리의 시설 및 장비
- 4) 기록물의 전산관리체제(디지털화 포함)의 구축 및 지원
- 5) 기록관리학의 전문 교육과정 및 인력제도
- 6) 기록물의 내용(contents)에 관한 연구

위와 같은 6대 부류에 수록된 총 24편의 논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기록관리(학)의 현황(조사) 및 분석

- ① 한국기록관리학의 현황과 미래 / 한상완. 제1권 제1호(2001.3.), 9-18.
- ② 中國 檔案學의 현황 및 發展趨勢 / 馮惠令. 제1권 제1호, 37-52)
- ③ 일본 기록관리학의 발전현황과 기록관리학회의 역할 / 高山正也. 제1권 제1호, 53-68)
- ④ 한국 공공기관의 기록보존·관리의 현황조사에 관한 연구 / 한상완·김성수·윤대현. 제1권 제1호, 131-152.
- ⑤ 국립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대한 연구 / 한상완·김성수·서혜란·윤대현·김희정. 제2권 제1호(2002.3), 67-96.

이상의 ‘기록관리(학)의 현황(조사) 및 분석’ 영역에서 ①-③은 본 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한·중·일 동양 삼국의 기록관리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강연을 논문으로 전환한 것이고, ④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현황을 대규모로 조사하면서 이를 면밀하게 파악·분석한 논문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⑤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료보존관>을 준공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상적인 자료보존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단위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창립되면서 불과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우리나라 및 중국과 일본 기록관리(학)의 현황과 전망·분석에 대한 5편의 연구결과가 나오으로써,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됨과 동시에 그 발전 방향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

- ①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 남효채. 제1권 제1호, 19-36.
- ② 한국 국가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조민정/ 제1권 제1호, 153-176)
- ③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의 발전전략에 관한 고찰 / 광동철. 제1권 제2호(2001.9.), 7-30.
- ④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운영 방향 / 이상민. 제1권 제2호, 31-56.
- ⑤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 김성수·서혜란. 제2권 제1호(2002.3.), 41-66.

이와 같은 ‘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 영역에서, ①-③은 우리나라 기록관리기관의 행정에 관한 발전전략 및 기록정보 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논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④-⑤는 차후 우리나라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대통령기록관의 설립문제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문제를 논술하고 주장한 논문들이다. 한국에서 기록관리학이 태동되면서 국가적인 기록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앞으로 한국 기록관리(학)의 제도와 그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가 계속 전개됨으로써 그 발전에 청신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물관리법의 법령과 관련하여 ‘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 영역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각 도(道)에 설치될 <지방기록보존소> 및 각 시(市)·군(郡)·구(區)에 설치될 <자료관>에 관한 제반 실제의 문제들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방기록보존소> 및 각 시·군·구의 <자료관>을 신설(新設)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모든 기록자료들을 수집하여 그 관련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여야³⁰⁾ 할 뿐 아니라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30)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각 도(道)의 <기록보존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주립 기록관>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중앙의 연방정부 아래 각 주마다 자치정부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각 주별로 자료관이 잘

강점(強點)이 있는 해당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안성맞춤’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상용될 정도로 유기(鑪器)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안성시의 경우, 그 지역에서 전래되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유기(鑪器)와 관련한 기록정보는 <안성시 자료관>에서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도 하면서 그 교육의 장(場)도 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유기 기술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기함으로써, <안성시 자료관>이라 할 때 일반인들의 뇌리(腦裏)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기(鑪器)관련 전문자료관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녀교육 등의 현안으로 이 자료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성화(特性化)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 중 가장 유명한 ‘정선아리랑(아라리)’의 고장인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정선군 자료관>을 설립하면서 ‘정선아라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들의 기록(악보 등) 및 관련 시청각자료 등 모든 관련 기록물들을 총괄 수집하고 이를 자료관 내의 전시관에서 멀티미디어로 상영하거나 직접 그 공연까지 겸하게 함으로써, 자료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선군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진도아리랑’의 <진도군 자료관>이나 ‘밀양아리랑’으로 유명한 <밀양군 자료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庭園)을 보유하고 있는 각 시·군·구에서는 해당 정원 자체를 자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교도서관 등에서도 해당 대학교의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이용 또한 가능할 것이다.³¹⁾ 이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발달되어 있다. 각 주의 특징을 살려 정치나 입법·행정에 관련된 주의회자료를 포함한 주정부의 공문서를 비롯하여 그 주의 특이한 지방색이나 문화·예술·오락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관리·운영하여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구나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립기록관으로는 ① 매릴랜드 주정부기록관(Archives of Maryland)의 경우, 매릴랜드주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 주정부의 헌법·규칙·행정업무 등 주의회의 공식문서 및 기록문·국회회의록·주지사의 편지·군대기록 등 백만 이상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고, 이중 364,000건 이상이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http://www.mdarchives.state.md.us> 참조).

②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Archives and Golden State museum: California 주립기록관)의 경우, 자료가 방대하고 풍부한 재원과 인력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멕시코와의 국경분쟁 및 골드워시 시대의 자료들이 많이 소장됨(<http://www.ss.ca.gov/archives.archives.htm> 참조).

③ 알라바마 주립기록관(Alabama Department of Archives and History)의 경우, 알라바마는 상대적으로 작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주도 아니지만, 그 주에 관련된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그 주에 관련된 역사·문화·가족 등에 관한 자료들을 온라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http://www.archives.state.al.us> 참조).

31) 미국 내에서 주제별 자료관(혹은 기록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

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주목할만한 특색이 있는 전통적인 한국의 주제별·시대별 기록 자료실을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각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에서도 해당 주제별 기록 관 또는 자료실을 개설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³²⁾

관으로는 단연 Duke University Library를 들 수 있다. 이 대학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Durham시에 소재한 남부의 대표적인 명문 사립대학으로 1924년에 설립되어 미국 남부지역 학문의 중심지로 학문연구, 문화, 예술을 주도해 오고 있다(<http://scriptorium.lib.duke.edu/specoll> 참조).

학문연구중진의 중심에 이 대학의 대형 도서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특수자료실(Rare Book, Manuscript, and Special Collections Library)은 20만권 이상의 인쇄물과 9백5십만에 달하는 수서본과 기록자료들을 소장하고, 'The American South'라는 주제하에, 미국남부지역의 역사·정치·문학·사회·문화·예술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방대하게 소장하고 있다. 특히 관리운영의 측면을 살펴보면, 자료들의 희귀성과 보존을 위해 모든 자료는 온도와 습도가 잘 맞추어진 특수 보관실에 비치되어 있고, 항상 모니터를 한다. 외부로의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두가 희귀하고 오래된 자료들이 많아서 사서들의 특별한 보관과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이 자료들은 전산처리되어 Duke University Online Catalog를 통해서 직접 검색가능하고, 또 그 중 중요한 자료로 선별된 것은 Archival finding aids[설명주: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 접근점을 제공해주는 기록물기술도구(description tool)로, 이 대학 자체 내에서 만든 원칙에 따라 기록물을 기술하고 있다.

(<http://scriptorium.lib.duke.edu/dynaweb/findaids> 참조)

개인·가족·기관·주제별로 분류하여 접근점을 제공한다. 수서본·일기·회신·공문·사진·필름·파일·지도·그림·스크랩·팸플렛 등 다양한 종류에 따라 전산화하여 직접 소장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료의 종류를 논술하면, 아래와 같다. 자료들이 아주 방대하여, 남부에 관련된 것은 총망라하고 있다. 미연방공화국이 영국제국에서 독립하던 때부터 20세기까지 망라한다. 남북전쟁당시의 남부군, 참모, 전략 등에 관한 여러 공식문서와 수서본들, 남북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의 개인 편지, 일기, 노예문서 등 관련자료들과 개인 소장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미국역사 전반에 걸친 남부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업, 문화, 종교, 인종, 노예, 교육 등 모든 자료들을 망라. 그 중 유명한 자료집으로는, 'Sallie Bingham Center for Women's History and Culture'라고 하여 남부여성에 관한 자료가 탁월하다(<http://scriptorium.lib.duke.edu.women> 참조).

18세기말에서 현재까지 미국남부의 여성을 주제로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운동, 노예 등 정치뿐 아니라, 남부의 여성, 여성교육, 사회참여, 가정, 문화,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유명한 남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작가별로 개인 자료들을 또한 분류하여 소장하고 있다.

또한 18·19세기초의 Frank Baker Collection of Wesleyana and British Methodism 자료집으로 남부에 자리잡은 감리교 종파의 설교집, 찬송가, 성경, 일기, 고백문, 등, 16-17세기 미국의 종교생활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고, 당대 대표할 만한 미국작가들이 작가별로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John Hope Franklin Collection of African and African-American Documentation은, 미국에 건너온 흑인들의 노예생활과 노예해방, 그 이후 흑인의 자손들의 미국정착과정, 문화, 예술 등 이에 관련된 자료들이 잘 소장되어있다.

- 32)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예를 들면, 이 도서관 내의 특수자료실(Special Collections in the Library of Congress)의 자료 중에 유명한 특수집서로 다음의 사항들을 들 수 있다.

① Susan B. Anthony collection(<http://www.loc.gov/spcoll/016.html>) : 미국개척당시 초기 여성 참정권운동의 선구자인Susan B. Anthony의 자료집으로, 여성운동과 노예반대에 관련된 자신이 직접 쓰고 발표한 논문, 연설문, 강의록, 일기, 편지, 개인 일기와 스크랩 등, 발표된 글들과 개인 소장품과 자료들이 수집되어 아버지와 자매에 의해 수집 보관되다가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고, 마이크로 필름처리하여 잘 소장되어 있다.

② Henry Harris Collection(<http://www.loc.gov/spcoll/108.html>) : Henry Harris는 미국 땅을

향후 <한국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각 도의 지방기록보존소 및 각 시·군·구 자료관의 신설 및 설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아이тем들을 이론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그 실제의 설립 및 건축에 이르기까지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助力)할 것이다.

3) 기록관리의 시설 및 장비

- ① 인공열화에 의한 국산 대량탈산시스템의 보존성 연구 / 신종순. 제1권 제1호, 177-200.
- ② 기록물에서 분리된 미생물에 대한 혼중소독의 효능검증과 독성조사 / 조이형·신종순·윤대현. 제1권 제1호, 231-244.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영역은 기록관리학의 학문 분야 내에서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이 영역에 대하여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한국기록관리협회>의 워크샵 등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 학회지에서는 창간호에서 단 2편의 논문만 발표되었을 뿐이다. 이 영역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차후 그 보강이 요청된다 하겠다.

4) 기록물의 전산관리체제(디지털화 포함)의 구축 및 지원

- ① 정부기관의 전자문서 관리방향 / 이제하·윤대현. 제1권 제1호, 245-257.
- ②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 남성운·윤대현. 제1권 제2호(200.9), 101-119.
- ③ 과학기술 종합지식 경영시스템 구축 / 심경. 제1권 제2호, 1211-158.
- ④ 전자문서의 영구보존을 위한 표준화 연구 동향 / 박은경. 제2권 제1호(2002.3), 97-117.

처음으로 발견하고 발을 디딘 1492년 초기 개척시대부터, 1551까지의 뉴잉글랜드 지방의 이민, 정착, 정치에 관해서 장장 300권에 달하는 *Bibliotheca Americana Vetussissima* (New York: G. P. Philes, 1866)를 1866년에 출판하였다. 이 책을 쓰기 위해 그는 평생을 온갖 회귀하고 귀중한 미국초기 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 모두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여 헨리 해리스자료집이라 하여 잘 보관하고, 크트히, 미국개척시대 당시의 지도와 사진이 600점에 달한다.

③ Quaker and Special Colleciton(<http://www.haverford.edu/library/special>) : 17세기 펜실베이니아주의 Haverford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주의 종교운동을 벌였던 퀘이커교도들의 자료들을 이 지역에 있는 Haverford college을 중심으로 자료를 소장하고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 퀘이커 교도들의 수서본, 자료들, 당시 유명했던 인물별로 분류하여, 지도, 사진, 그림, 수서본, 회의자료, 잡지, 일기 등을 검색·이용할 수 있다.

④ American Civil War Collections(<http://etext.lib.virginia.edu/civilwar>)

- ⑤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관리를 위한 KOREMARC/EAD 통합시스템 구현 / 김현희. 제2권 제1호, 119-131.

‘기록물의 전산관리체제(디지털화 포함)의 구축 및 지원’ 영역은 최근 ‘전자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기록관리학의 매우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한국의 기록관리학도 선진국 기록관리학의 연구 추세와 궤도를 같이하며 이 영역의 연구가 활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현재 문헌정보학의 연구 영역에서도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한 것과 같이, 차후 한국기록관리학의 각 연구 영역 중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리라고 예측된다.

향후 2004년부터 설립될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리라 생각된다.

5) 기록관리학의 전문 교육과정 및 인력제도

- ①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 김용원. 제1권 제1호, 69-74.
- ②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 최정태·윤송원. 제1권 제1호, 95-129.
- ③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 연구 / 김정하. 제1권 제1호, 201-230.
- ④ 기록관리의 전문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제도 / 김태수. 제2권제1호(2002.3.), 7-39.

‘기록관리학의 전문 교육과정 및 인력제도’의 영역은 한국에서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이 정착되기 위하여, 그리고 기록관리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이 영역에 관한 연구는 차후 중·단기에 걸쳐 가장 긴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간주된다. 위 ①과 ③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②와 ④는 주요 선진국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논문이다. 매우 시기적절하게 그 내용의 논술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몇 년 동안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더욱 촉진되어야 하고 활발한 토론과 논쟁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의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그 전문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 중 4분의

1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에서 10여개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기록관리학전공이 설치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하여 다만 학부과정에는 유일하게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 기록관리학전공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일종의 관리직에 치우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간과(看過)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위시하여 각 대학교 및 민간기업 등 기록물관리전문가의 향후 수요를 감안한다면, 전국 대학교의 학부 중 문헌정보학전공의 규모 정도로 기록관리학전공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³³⁾ 따라서 한성대학교의 사례와 같이,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이라는 학문의 정착을 위해서도 학부에 그 기록관리학전공 또는 기록관리학과와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게다가 공무원의 임용에도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며,³⁴⁾ 향후 국가적인 수요에 그 전공자의 공급을 위하여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에 기록관리학과 또는 그 전공과정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6) 기록물의 내용(contents)에 관한 연구

- ① [國遺事]의 桓雄과 炎帝神農의 기록학적 비교 고찰 / 윤순. 제1권 제2호(2001.9), 57-79.
- ②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김성희. 제1권 제2호, 81-100.
- ③ 朝鮮初 益安人君發願寫經에 관한 연구 / 권희경. 제1권 제2호, 159-184.

한국기록관리학의 위 다섯 영역의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 기록물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기록물의 내용 파악 및 평가, 그리고 민족의 문화유산인 개개 기록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33) 미국의 경우 문헌정보학대학원인 'Information Studies' 내에 문헌정보학(정보학)전공과 기록관리학전공을 개설하여, 대학원 경영에 효율화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34) 기록관리학 전문요원의 자격은 문헌정보학에서 사서자격증을 2단계로 구분하여 발급하는 방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록관리학 전공자의 저변확대와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부여 문제 또한 한국기록관리학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창간호(2001.3)가 발간된 후 그 다음호인 제1권 제2호(2001.9)의 발간을 기획하며, 우리 고유의 역사적인 기록물 즉 고려시대와 조선초의 대표적인 기록물에 대한 2편의 연구를 의뢰하였고, 아울러 현대적인 기록물의 지식공유에 대한 연구를 위촉함으로써, 상기 3편의 논문이 제1권 제2호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향후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편집 방침에 의거하여, 과거와 현재에 걸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중 중요 개개 기록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분석하여 보았다.

요컨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우리나라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그 실무와 이론의 발전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우수한 논문의 발굴과 수록에 매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인 기록물 관리·보존의 발전에 그 견인차(牽引車)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3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한국기록학회>의 기록보존관리연구

김학준 박사의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선각(先覺)과 이를 뒷받침해온 명지대학의 유명 구이사장의 노력으로 1998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을 설립하고, 기록관리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정부당국의 법률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기록관리학의 연구에도 진력하여 기록학연구를 1999년부터 발행하였다. 한편 같은 해에 기록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와 협력하여 1년 과정으로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발행하던 기록학연구를 <한국기록학회> 학회지로 변경하여 매년 1회씩 발간하여 기록관리학의 이론과 실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4 기업(企業)의 기록보존·관리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태동과 그 발전과정(發展過程)과 관련한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한국 현대적인 기업들이 중소기업 등으로 창립되고 2세대 내지 3세대를 지나오면서 각 기업들이 그룹화 되는 경향을 보였고, 동시에 해당 기업의 출범 이후 차츰 또는 급작스럽게 방대해진 기업의 규모 확장의 과정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 확보의 어려움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의 발전사(發展史)와 관련한 자료(史料)의 수집(收集)과 발굴 및 정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각 기업들은 이른바 '기업의 사료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예컨대 <사료관>의 설립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미 착수한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주목(注目)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기록관리 측면은 그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한국 기록관리학의 실무 및 발전에 지대(至大)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기록관리협회와 학회 등은 기업의 기록관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조력(助力)해 주어야 한다.

기업의 기록관리는 이제 그 발전의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기업기록물의 관리 사례를 참작하여 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해당 기업기록관의 용어에서부터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의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이라 하여 크게 2장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각각 고찰하여 보았다. 이상의 본론의 핵심을 다시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보존의 국가적인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의 기록물관리·보존의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을 고찰하

였다. 그 결과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次官)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대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치(措置)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기관이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행정부·사법부·입법부 및 헌법기관 등의 각종 기록물관리기관들을 범(凡)국가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또 새롭게 입주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기록물의 총체적인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04년 기록물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당시에는 그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들을 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정부기록보존소>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상호 협력하여, 한국의 국가기록문헌들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영구보존(永久保存)하고, 기록자료 보존체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컨대 “국가기록문헌 보존·복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가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기록물 관리·보존 워크숍’의 개최 및 기관지의 발행 등 본 협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록물관리·보존 활동의 다양한 현황과 그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향후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 및 기업체회원 등이 기존의 우리나라 기록관리·보존업무의 실무에 직접 참여하면서 활동하여 왔기 때문에, 2004년 이후 구축될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그밖에 <대학기록보존소> 등의 설치와 관련 기록물 관리·보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한국기록관리협회>의 기록관리·보존 활동은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 문제, 3)기록물 관리·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관리의 전문인력 교육·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여 보았다. 즉, 먼저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일련의 기록관리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먼저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중·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본 학회는 <한국정보관리학회>와 미국 <OCLC Institute> 및 <한국기록관리협회> 등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한 것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동양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히 제시하여 주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이에 따라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특기(特記)할만한 사항으로는 ①‘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 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強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안성시 자료관>의 경우 유기(鑪器) 관련 전문자료관으로 육성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②‘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와 관련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

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간과(看過)해서는 아니 될 것을 파악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위시하여 각 대학교 및 민간기업 등 기록물관리전문가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전국 대학교의 학부 중 문헌정보학전공의 규모 정도로 기록관리학전공의 신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황이다. 따라서 한성대학교의 사례와 같이,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학이라는 학문의 정착을 위해서도 대학교의 학부에 기록관리학전공(또는 학과)의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견인할 세계적 시야를 가진 기록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와 더불어 기록관리의 현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기록관리학 분야의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생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문헌정보학과(또는 전공)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의 학부에 기록관리학과(또는 전공)를 신설함으로써 이 분야의 전공자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그리고 <한국국가 기록연구원> 등의 민간연구·실무단체와 <정부기록보존소>를 위시한 정부기관 등은 밀접하게 상호 협력함으로써, 19세기까지 찬란했던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한국의 기록문화 중흥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1.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김성수·서혜란. 2002.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1호(2002.3), 41-63.
(정부기록보존소). (2002). 정부기록보존소(팜플렛).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기록관리학회. 2000. 한국기록관리학회 제2회 학술발표논문집. 서울: 한국기록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1호(2001. 3). 서울: 한국기록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 제2호(2001. 9). 서울: 한국기록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2권 제1호(2002. 3). 서울: 한국기록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협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0. 제2회 기록물관리 · 보존 워크숍. 전자정부 및 자료관 기록물 보존 · 관리업무. 서울: 한국기록관리협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 한국정보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2001.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의 활용. 서울: 한국정보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협회. 2000, 2001. 기록관리보존. 제5호(2000), 제6호(2001).
- 한국기록보존협회. 1996, 1997. 기록보존과 관리. 통권1호(1996), 통권2호(1997).
- 한상완 · 김성수 · 서혜란 · 윤대현. 2001.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한상완 · 김태수 · 김성수 · 남효채 · 김희정. 2002.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관리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 서울: 한국기록관리학회 · 한국기록관리협회.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0. 기록보존소식. 창간호(2000.10). 대전.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매릴랜드 주정부기록관(Archives of Maryland) : <http://www.mdarchives.state.md.us>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Archives and Golden State museum) :

<http://www.ss.ca.gov/archives/archives.htm>

알라바마 주립기록관(Alabama Department of Archives and History) :

<http://www.archives.state.al.us>

미국 듀크대학교 도서관(Duke University Library) :

<http://scriptorium.lib.duke.edu/specoll>

<http://scriptorium.lib.duke.edu/dynaweb/findaids>

<http://scriptorium.lib.duke.edu/women>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 특수자료실(Special Collections in the Library of

Congress)의 자료 중 특수집서. <http://www.loc.gov/spcoll>

① Susan B. Anthony collection : <http://www.loc.gov/spcoll/016.html>

② Henry Harrisse Collection : <http://www.loc.gov/spcoll/108.html>

③ Quaker and Special Colleciton : <http://www.haverford.edu/library/special>

④ American Civil War Collections : <http://etext.lib.virginia.edu/civilwar>

K C I